

지역 소식통

부안군, 양식어업·수산자원 관리·보조사업 희망자 모집

부안군은 2022년도 양식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분야 보조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양식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김 양식어가 지원사업,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축제식 양식장 사육환경 개선사업, 마을 어장 신관리사장 조성 등 2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4,510만 5,000원(보조 34억2,290만5,000원, 자부담 9억4,287만1원)이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및 양식 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 어업의 인·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개별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치유농업 사회 서비스 분야 확대

고창군이 치유농업 관계자와 사회복지분야 담당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치유농업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11일 보니타정원(대표 정진강)에서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주관으로 치유농장 대표자와 사회복지분야 업무담당자가 함께하는 치유농업 사회복지분야 업무공유회가 열렸다.

행사에선 치유농업 의미와 사회복지분야 연계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관내 치유농장의 대표 치유프로그램 등이 소개됐다.

또 보니타 정원의 허브식물 아로마향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 가 됐다.

올해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4개 치유농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목표 달성에 최선 다할 것”

고창군, 농생명식품·역사문화관광 힘차게 도약

고창군이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해 지역 성장 기반으로 삼는 새해 계획을 밝혔다. 특히 ‘노을대교 조기착공’, ‘서해안 철도 대선공약 반영’, ‘서해안권(고창·갯벌·선운산 일대)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청사진도 내놨다.

12일 고창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구상을 담은 ‘2022년 군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고창군수는 “높을고창”, ‘농민수당’,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대표되는 고창의 자존심 찾기가 성공적으로 이



취지면서 고창의 대내·외 인지도가 대폭 상승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한반도의 첫수도로 도

약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역점사업으로 ▲한반도 농생명 식품산업 중심도시 ▲폭격되는 역사문화 생태관광 중심도시 ▲자식 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는 도시 ▲나눔과 봉사로 촉촉한 복지도시 ▲함께 살리고 함께 잘 사는 상생경제 ▲올려 행진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안전행정을 제시했다.

노을대교 조기착공과 서해안철도의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으로 시흥팔달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고창군 미래먹거리 프로젝트 고창염전개발사업인 ‘노을생태갯벌 플랫폼조성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마중물 사업에 골고루 트게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열대 작물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면서 정읍지역에서도 당도 높고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 만감류가 새 소득 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

‘새콤달콤 정읍산 레드향’

정읍시 대표 만감류 홍예향(레드향) ‘본격 출하’

이열대 작물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면서 정읍지역에서도 당도 높고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 만감류가 새 소득 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

시는 정읍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홍예향(레드향)의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만감류는 한라봉과 레드향으로 감귤과 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만든 이열대 작물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온에 민감해 겨울 추위가 심한 내륙지역에서 재배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정읍시에는 2013년부터 만감류를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으로 시험 연구해 농가에 보급해 왔으며, 현재 34개 농가에서 11ha를 재배하고 있다.

주 품종은 레드향과 천혜향 한라봉으로 전북 생산 만감류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레드향’, ‘천혜

향’은 ‘천년향’으로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그중 정읍 ‘홍예향’은 껍질이 얇고 과즙이 많으며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성분을 많이 함유해 혈액순환과 감기 예방에 탁월하며 피부미용 등에 좋다.

특히 비옥한 토질과 적절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이며, 특유의 맛과 향기가 있고 저장 기간이 길어 소비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읍 홍예향의 주 수확시기는 1월 중순부터 2월 상순으로 설 명절 선물 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만감류 재배 농가는 “제주도 감귤류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품질 좋은 만감류 개발에 더 매진할 것”이라며 “맛과 향이 좋은 정읍지역 만감류의 적극적인 소비와 설 명절 선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감염병 신속 대응’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정읍시, 의료진·검사자 동선 분리로 감염 위험 최소화

정읍시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음압 텐트와 컨테이너 등 간이 형태의 열악한 환경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나 폭염과 강풍 등 외부환경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과 피검사자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과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건소 후관 1층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했다.

새롭게 조성된 선별진료소는 총사업비 4억원(국비 1억4천만원, 도비 4천만원, 시비 2억2천만원)이 투입됐다. 총 116㎡ 규모로 역학조사실과 검체



정읍시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실(3실), X-ray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환기 시스템과 냉난방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검사자 공간에는 음압 의료진 공간에는 양압을 넣어주는 자동 음압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확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영광·함평 서해안철도건설 군민추진단, 범군민 서명운동 나서

새만금에서 고창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는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고창군민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서해안철도건설 군민추진단(고창)’은 지난 11일 고창 종합버스터미널 등에서 ‘서해안 철도건설 국가철도망 계획반영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해안철도건설 군민추진단은 성명을 통해 “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돼

있던 서해안권 철도사업이 2차 계획부터는 제외돼 왔으며 “더 이상 서해안권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며 서해안 철도 건설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해안철도는 서해안의 물류, 교통 SOC 기반을 구축해 환경해권 시대와 앞으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원

사업이다”라며 “서해안철도가 건설되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이용률을 높여 국가 기반시설간 상승작용을 극대화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등 관련 지자체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로 국제물류 중심지역으로의 부상’을 촉구하며 최소 6만인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군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 체결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은 12일 의회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인규 의장과 유기상 군수를 비롯해 의원 및 양 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주요내용 설명, 상호 인사 협약서 서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인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

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협약식에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의회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수행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후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방자치의 참맛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